
국 외 출 장 복 명 서

1. 출장개요

1) 출장목적

- 지중해 남부 프랑스와 영국의 남부지역에 위치한 해양도시의 관광지 개발 관련 실태와 도입시설 등에 대한 諸般 사항을 조사함으로써, 영덕군 강구항이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축”을 이루기 위한 계획에 부응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역할을 정립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프랑스와 영국의 최근 해양관광 관련 추세 및 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 아울러 해양관광·문화연구팀은 특성상 해양관광 관련 프로젝트가 많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해양 선진국의 개발사례와 도입시설에 대한 다양한 자료 구득과 개발사례 축적은 향후 업무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2) 출 장 자

- 해양국토연구부 해양관광·문화연구팀 이종훈 부연구위원
- 해양국토연구부 해양관광·문화연구팀 이윤정 연구원

3) 출장일정

- 2009. 2. 1(일) ~ 2. 9(월) (7박9일)

4) 출 장 지

- 프랑스(Le Cap A'dge, Sete, Port Camargue 등)
- 영국(Arundle습지센터, Portsmouth, Poole)

2. 출장 세부내용

1) 출장 일정

일 자	지 역	주 요 일 정	비 고
'09. 2. 1(일)	인천→파리 파리→ 몽펠리에	- 출국(파리행 항공편) - 몽펠리에 이동(항공편)	
2. 2(월)	몽펠리에→ Cap d'Adge Sete Palavas	- Cap d'Adge 현장 견학 및 비지터센터 방문 - Sete 관광시설 견학 - Palavas 경유	마리나/리조트
2. 3(화)	La Grand Motte Le Grau du Roi	- La Grand. Motte 비지터센터 및 마리나 - Port Camargue 비지터센터 및 마리나	마리나/리조트
2. 4(수)	마르세이유 → 포즈머스	- 구항(Port Vieux) - Gatwick공항을 경유하여 포즈머스로 이동	
2. 5(목)	Poole	- Poole 비지터센터 방문	해변휴양·관광 鳥類보호
2. 6(금)	Arundle	- Wetland Center 방문	생태학습 및 습지관광시설
2. 7(토)	Portsmouth → 런던	- 10:00 포즈머스 해양관광시설 견학 - 15:00 이동(버스, 런던행)	Seafront 시설
2. 8(일)	런던 귀국행 탑승	- 10:00 Thame강 Waterfront, 크루즈 탑승 - 20:05 귀국(항공, 인천행)	친수공간 개발 및 활용
2. 9(월)	인천	- 16:00 인천공항 도착	

2) 프랑스 남부 해양관광지 사례조사

(1) 프랑스 남부 개황

- 프랑스는 서측으로는 대서양과 남측으로는 지중해와 접하고 있는데, 22개 지방(region)中 랑독-루시옹(Languedoc-Roussillon), 프로방스 알프스 코트 다쥐르(Provence-Alpes-Cote d'Azur), 코르시카(섬) 등 3지방이 지중해와 접해 있다.
- 1960년대 이후 랑독-루시옹 해안지역 개발, 프로방스의 포스(Fos) 임해산

업단지 개발, 꼬트 다쥐르의 소피아 앙띠폴리스의 혁신도시화사업 등 정부 주도의 대규모 사업이 지역발전차원에서 실시되었다.

- 이 가운데 랑독-루시옹 해안지역 개발사업은 관광중심의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당시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유출되던 관광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한편 지중해 동부의 프로방스 알프스 꼬트 다쥐르 지역은 전통적으로 해양관광이 발달한 지역으로 대표적인 도시로 마르세유, 니스, 칸느 등이 있다.



- 출장지는 랑독-루시옹 지방의 Le Cap A'dge부터 프랑스 제1의 항구도시인 론(Rhone) 지역의 마르세유까지이다.

<그림 1> 프랑스 남부 출장지



(2) 랑독-루시옹

① 지역개요

- 랑독-루시옹은 지중해와 접해 있는 프랑스 남부 연안지역으로 파리에서는 남쪽으로 약 950km 정도 떨어져 있다. 서쪽으로는 스페인과 접하고 동쪽으로는 니스를 거쳐 이탈리아와 접하는 남부 해안지방의 중심지역이다.
- 전체면적은 27,376km²(프랑스 전체 면적의 약 5%)이며, 인구는 약 230만명이

고, Lozere, Gard, Herault, Aude, Pyreness- Orientales의 5개 지방과 1,545개의 커뮤니티(佛commune, 英community)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랑독-루시옹의 지역여건

구 분	지역 여건
중심도시	몽펠리에
해안특징	해안선 길이 220km(180km 모래해변), 연안으로 염습지가 넓게 분포해 있으며, 해안을 따라 사구·석호가 발달함. 조석간만의 차는 적음
기 후	지중해성 기후로 겨울철에도 온난하며, 여름철은 습도가 낮아 활동하기 좋음
관광현황	2002년 현재 연간 1,420만명 방문(외국인 : 440만명, 31%) 관광종사자는 65천명이며, 관광산업이 지역경제(GRDP)의 12%를 차지하고 있음

② 랑독-루시옹 해안개발사업

○ 개발개요

■ 사업대상지

: Lozere지방(내륙)을 제외한 4개 지역(Department), 67개 시(Commune)

■ 사업비

: 총 72억 5천 프랑이 소요되었으며 이중 공공부문에서 12억 5천 프랑(17%), 민간부문에서 60억 프랑(83%)이 투자되었다.

■ 추진과정

- 1960~1962년 : 1959년 공통농업정책(포도산업 제한)의 발표이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랑독-루시옹 연안지역에 리조트 개발 구상안 마련
- 1963년 : ‘랑독-루시옹 연안리조트개발단지 결정 및 추진을 위한 대통령령’에 따라 범 部處적 특수행정 전담기구를 조직 설립
- 1972년 : 마스터플랜 완성
- 1980년 : 주요 사업 완공

○ 관광권역 설정

- 랑독-루시옹 개발프로젝트는 연안지역을 따라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추진되었으며, 권역의 특성에 따라 7개 신규 리조트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각 권역마다 완충지대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연보호권역을 설정하였다.

- 5개 권역 : Grand Du Roi↔Palavas, Sete↔Cap d'Agde, Valras↔Gruissan, Leucate-Barcares, Canet↔ St. Cyprian
- 신규 리조트 개발(7개 리조트) : La Grande Motte, La Cap d'Agde, Gruissan, Port Leucate, Port Barcares, St. Cyprian Plage, Port Camargue,

<그림 2> 랑독-루시옹 해안개발사업의 관광권역



○ 개발계획의 특징

- 조화로운 도시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기본원칙의 수립
: 해변 1ha 당 800명을 한계 수용량으로 설정, 해변지역 차량 통제, 위락공간과 공원녹지 공간을 각 구역마다 조성
- 항만(17개 항만), 고속도로(180km) 정비, 마리나 단지 조성, 관개 및 용수시설 정비 등 기반시설 정비
- 리조트마다 각기 다른 형태의 건축양식 적용 : 리조트마다 개별 건축가 선정
- 해양관광활동을 위한 충분한 수역 공간 확보

- 공공과 민간의 효율적 역할 분담
 - 중앙정부 : 계획수립과 조정, 토지취득 공공사업(조립,항만)
 - 지방정부 : 재정지원, 신규리조트의 토지매각
 - 민간기업 : 숙박시설, 쇼핑시설, 오락시설 건설
- 토지매입과 보전지역 지정(개발대상구역과 보호구역의 설정)

○ 주요 개발지역의 개발방향

<표 2> 리조트별 개발방향

지역		특징	개발방향
1	Grande Motte (Port Camargue 포함)	고밀도 개발	▪ 마리나를 중심으로 7개 지구로 분산 배치 ▪ 피라미드식 고층건물로 백색을 주제로 형이상학적 건축 디자인 ▪ 골프장, 녹지축을 구성하여 인공적인 건축물의 답답함 해소
2	Palavas	석호 지역	▪ 마리나항을 중심으로 양쪽의 해변을 개발 ▪ 자연형 석호에 의해 선형 리조트로 개발
3	Sete	어항구 재개발	▪ 구 어항 지구의 마리나 시설 정비와 도심재개발 ▪ 운하를 중심으로 도시경관 정비
4	Cap d'Agde	중밀도 개발	▪ 4~5층으로 주황색과 직선으로 구성된 독특한 기법 사용 ▪ 독립된 리조트 분위기 연출 ▪ 차량동선을 단지 외부로 설계
5	Narbonne		▪ 주황색과 원형의 건축물로 3~4층 저밀도 개발 ▪ 선형으로 개발하면서 도시와 근접하게 상업성 유지
6	Gruissan		▪ 별장형 건물을 배제하고 전 단지를 2층 이하로 설계 ▪ 가족단위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계 ▪ 해양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독특한 단지환경 유지

③ 그랑 모트(La Grande Motte)지역

- 그랑 모트는 고층건물을 중심으로 한 고밀도 개발 지역이며, 피라미드 형태로 건축물을 설계하여(건축 설계 : Jean Balladu) 건축물의 경관이 매우 우수한 리조트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배후도로와 리조트 단지사이에는 넓은 녹지를 조성하여 외부와 단절된 형태로 리조트를 개발하였다.
- 그랑 모트는 마리나 시설을 중심으로 마리나 지구, 숙박지구, 해변휴양지구, 레저·스포츠 지구 등 총 7개 지구로 구분 개발하여 관광객의 집중현상을 방지하였으며 리조트내 모든 건물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한 것이 특징적이다.

○ 시설개요

- 요트 수용능력 : 1,300
- 약 4,500 채의 영구주택과 19,000 채의 휴가용 주택(holiday residence)
- 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약 12만명 수용 가능)
- 기타 관광시설 : 요트클럽, 해양레저시설, 골프장, 테니스코트, 카지노 등

<그림 3> 그랑 모트(La Grande Motte) 전경



④ 카마르그항(Port Camargue)

○ 카마르그항(면적 : 930km²)은 Le Grau du Roi에 위치하고 있는 유럽 최대의 마리나항구이며,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그랑 모트 지구에 포함되기도 한다. 이곳에서는 항행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50여명의 전문가들이 전문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 시설개요

- 계류시설 : 60ha의 도크시설, 약 2만개의 계류시설
- 숙박시설 : 호텔 22개소, 리조트 맨션 2개소, 휴가용 주택 5개소, 별장, 캠핑장, 별장

- 레저스포츠 시설 : 요트강습 전문학교, 요트클럽, 미니골프장, 승마·볼링·배구장 등
- 기타 관광시설 : 도서관, 극장, 음악홀, 수족관, 해양박물관
- 위락시설 : 레스토랑, 스낵코너, 나이트클럽, 공원 등
- 공공시설 : 관리사무소, 관광사무소, 경찰서, 수도국, 우체국, 항구관리소 등
- 지원시설 : 병원, 약국, 탁아소, 아동사회보건센터 등

<그림 4> 카마르그항(Port Camargue) 전경 및 시설



○ 수족관

- 수족관 관계자에 의하면, 연간 약 25만명이 방문하고 있는데, 특히 카마르그항 마리나 시즌인 하절기에 방문객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 내부시설은 실내수족관, 야외 물개사육시설, 해양동물(특히 바다거북) 교육장 등이 마련되어 있다. 수족관에는 주로 지중해와 대서양에 서식하는 물고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일부 다른 대양의 어류를 포함하고 있다.

- 한편, Le Grau du Roi는 프랑스 제2항의 어항지역으로 100톤급 이상의 어선이 약 130여척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근해어선으로 우리나라 어항과 같은 활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⑤ 팔라바(Palavas)

- 팔라바는 랑독-루시옹의 중심도시인 몽펠리에(Montpellier)에서 남쪽으로 약 6km 떨어진 Lion灣에 위치하고 있다. 두 개의 석호와 바다를 사이에 끼인 길고 좁은 해안지역으로, Lez江이 도심을 관통하여 흐르고 운하가 좌우측의 석호를 연결하고 있다.
- 과거 이곳은 어항을 중심으로 한 어촌지역이었으나, 현재는 마리나를 중심으로 한 관광도시이다.
- 모래 언덕의 내측의 석호지역은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관광코스으로도 개발되어 있으며, 해변은 경관이 아름다워 산책코스로 인기가 높다.
- 아침에는 어업인이 잡은 물고기를 판매하는 어시장이 열리며, 강 하류에 형성된 운하를 따라 수변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그림 5> 팔라바(Palavas) 전경 및 랜드마크



○ 관광시설 및 활동

- 모래해변, 요트학교, 카지노, 놀이공원, 랜드마크(Phare de la Méditerranée)

- 다이빙, 낚시, 요트활동, 석호 산책
- 행사 : 4월 익스트림 스포츠 페스티벌, 5월~9월 해상 소형선박경연대회 (Water Racing Tournament), 7월 St. Peter 페스티벌

○ Phare de la Mediterranee

- Phare de la Mediterranee는 도시의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등대모양의 독특한 건물로 과거 급수탑(water tower)을 재활용한 시설이다.
- 여기에는 컨퍼런스 센터, 관광사무소, 전망시설이 있으며, 65m 탑 최상층부에는 회전하는 레스토랑이 있다.

⑥ 세트(Sete)

○ 특징

- 17세기 세트운하 건설
- 항만 : 제2의 항만도시(포도주 수출항), 수상레저(마리나, 선착장, 운하), 어항
- 시인 발레리의 출생지

○ 세트(Sete)는 몽펠리에 남서쪽 26km, 지중해의 리옹만(灣)에 위치하고 있는 석호와 바다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7마일 이상의 긴 모래해변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인근에는 수하식 굴 양식이 드넓게 펼쳐져 있다.

○ 이 지역은 과거 수산업이 발달하였으며, 17세기에 이미 운하가 개발되었다. 현재는 항만주변으로 정유, 화학, 전기, 식품 단지가 조성되어 도시의 산업을 이끌고 있으며, 약 4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그림 6> 세트(Sete) 전경 및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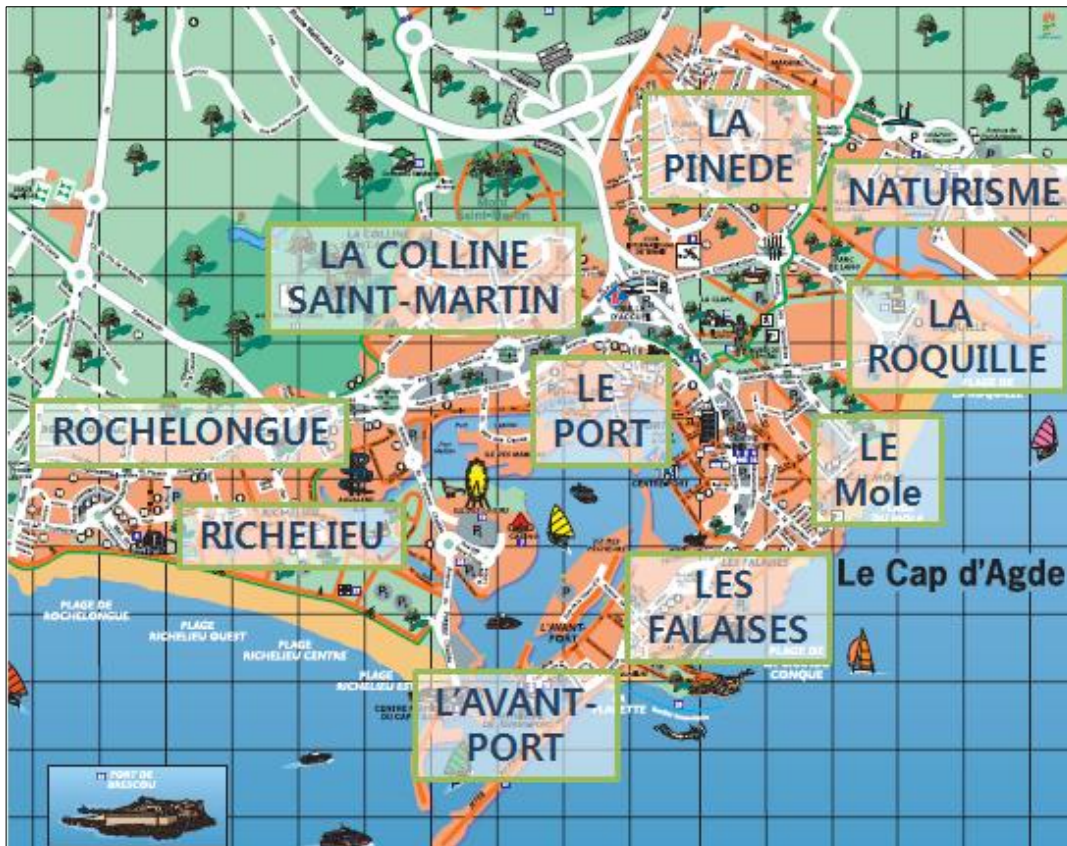


- 이 지역 개발은 신규 해양관광시설을 조성하기보다는 기존 어항지구, 운하, 도시경관 정비에 중점을 두었다. 현재 과거 어항구와 운하를 레저보트 계류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운하에서는 매년 운하 크루즈, 어촌지역 축제 등을 펼치고 있다.

⑦ Le Cap A'dge

- 랑독-루시옹 중부 해안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Le Cap A'dgde는 4~5층 규모의 중밀도 개발이 이루어진 리조트 지역으로, 주황색만을 사용하여 프랑스 남부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잘 살렸다.
- Le Cap A'dge는 10개의 개별 지구마다 별도의 중심시설을 조성하여, 독립된 리조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총 면적은 180만평으로 그랑 모트, 그뤼쌍(Gruissan) 다음으로 개발규모가 크다. 비지터센터의 홍보 담당인 Ms. Sandrine에 따르면 2007년도 통계상으로는 약 1,200만명이 방문하였으며 이 가운데 약 30%인 350만명 정도가 숙박 관광객이었다고 한다.

<그림 7> Le Cap A'dge의 10개 지구



○ 각 지구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 Le Port : 리조트의 핵심지역으로 요트 계류장과 소규모 친수공간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상점과 Gift Shop이 있음
- Richelieu : 모래 해변과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
- L'Avant-port : 섬, 어항, 마리가 있음
- Les Falaises :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곳 지역으로 절벽으로 둘러싸인 해안경관이 아름다워 산책이나 유람하기 적합함
- Rochelongue : 현대적인 분위기와 지중해 분위기가 조화를 이룬 지역
- Le Môle : 지중해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해변과 쇼핑시설이 있음
- La Roquette : 대규모 해변과 Lano Public Park가 있음
- Naturist Village : 항구에서 해변까지 누드마을이 형성되어 있음
- La Colline St Martin : 언덕에 자리하고 있는 전형적인 지중해성 식생지임
- La Pinède : 문화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지역임

○ Le Port 지구

- Cap d'Adge의 핵심지역으로 대규모 마리나 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 마리나 시설은 폰툰형 요트계류시설과 함께 주택에 연결된 계류시설도 조성되어 고급 요트 소유자들도 만족시키고 있다. 그리고 내만으로 소규모 도서를 연결하여 계류 능력을 극대화하였으며, 육상 요트 보관시설은 조성되어 있지 않다.

<그림 8> Le Cap A'dge 內 Le Port 지구 전경



- 한편 이곳에서는 하계 휴가철을 이용하여 요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요트학교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인근 해역을 항행하는 크루즈 선도 운행되고 있다.
- 마리나 시설 주변으로는 숙박시설과 레스토랑 등이 구성되어 있으며, 요트를 즐기는 하계 휴가철 여행객뿐만 아니라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휴양 및 기분전환을 위해 찾고 있다.
- 한편 주차장을 입구에 마련하여, 시설내부에서는 도보로 한 이동하게 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줄였다.

(3) Bouchers-du-Rhone(department)

① 지역개요

- 론 지역은 카마르그부터 마르세유까지 론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는 프로방스-알프스-코트 다쥐르의 한 지역(department)이다. 이곳은 크게 3구역으로 나뉘지는데, 자연보호구역으로 보호받고 있는 카마르그 습지지역, 석호 및 해변 주변으로 조성된 해안도시, 고대부터 항구도시로 발달한 마르세유 등이다.

<표 3> Bouches-du-Rhone의 지역여건

구 분	지역 여건
중심도시	마르세유 (Fos 임해공업단지)
인구 및 면적	- 인구 : 약 19만명(2006년 기준) - 면적 : 5,087km ²
해안지역	- 해수면길이 : 약 289km - 긴 해안선을 따라 절벽, 어항, 해변이 아름다움
기 후	전형적인 프랑스 남부 기후(온난하며, 강수는 겨울철에 집중됨)
해안 주요 관광지	- 카마르그(습지 지역) - 석호 주변 도시 - 마르세유(프로방스 지방)

○ 론 지역의 구역별 특성

- 카마르그 자연보호구역에서는 홍학(플라밍고)과 야생마를 비롯한 자연상태의 습지를 체험할 수 있다.
- Blue coast지역은 랑독-루시옹의 석호 연안도시와 자연환경이 유사하며

해양관광을 즐기기에 적합한 곳으로, 해변을 따라 마르티그(Martigue), Fos sur Mer, Port de Bouc, Sausset-les-Pins 등이 있다. 대부분 과거에는 어촌이었으나 현재는 레저항구로 재개발되었으며, Fos지역은 남부 프랑스 최대의 임해공업지역이다.

- 한편 마르세유는 기원전 6세기에 건설된 프랑스 제1의 항만도시로 고대와 현대의 조화가 매력적인 도시이다.

<그림 9> Bouches-du-Rhone 지역



② 마르세유

- 마르세유는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자, 가장 큰 항구도시로 지중해와 동남부의 산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다.
- 마르세유 중심부의 구항(Vieux Port)은 요트가 정박하는 레저항이며, 구항의 서측으로는 신항만이, 남측으로는 모래해변과 소규모 어항이 자리하고 있다. 즉 이곳은 항만, 어업 등의 산업뿐만 아니라, 해수욕, 각종 해양레저스포츠(요트, 윈드서핑, 스킨스쿠버 등), 크루즈 등 해양레저 활동도 발달한 지역이다.
 - 마르세유 해안은 дай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며, 프랑스 수중 스포츠 연구 연합회, 전문 дай버 연구소, 해양코맥스센터(세계 잠수 기록을 수집하는 단체) 등 스킨스쿠버 관련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 마르세유에서는 마르세유~코르시카를 운행하는 요트 경기, 세계요트 챔피언쉽, 프랑스 요트대회, 세계 요트 경기, 아메리카 컵의 사전 경주인 Acte 1(엑트1) 등 국내외 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 한편 선사시대 빙하기에 형성된 흰색의 절벽지대인 깔랑크(Callelongue)와 이프 섬은 바다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아름다워 연안 크루즈를 즐기는 사람이 많다.
- 마르세유는 프랑스의 제1의 어항지역으로 구항(舊港, Vieux Port)에서는 매일 아침 8시경부터 오후 1시까지 Fish Market이 열리고 있다.

<그림 10> 마르세유(Marseille) 전경 및 어시장



(4) 프랑스 남부 사례 요약 및 시사점

- 프랑스 남부는 석호와 사구, 습지가 발달한 지역으로, 조석간만의 차가 적고 수심이 깊은 우리나라 동해안과 해안지형이 유사하다. 그리고 지중해에 위치하고 있어 겨울철은 온화하고 여름철은 일조시간이 길고, 아름다운 문화 및 역사자원을 간직하고 있다.
-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해양활동에 유리한 지리적 강점을 살려, 서남부 해안지역(랑독-루시옹 등)을 레저보트 항구인 마리나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지로 개발하였다. 이 지방의 도시는 마리나 항구와 함께 리조트가 개발되어 있으며, 그 규모는 2만척의 요트를 정박할 수 있는 카마르그 항에서부터 江 하구에 위치한 단순한 요트계류시설까지 매우 다양하다.
- 그러나 프랑스 남부 대부분의 도시에 건설된 마리나는 경쟁관계라기 보다는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어, 동일한 자연 및 인문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면 동일 형태의 관광지로 개발함으로써 집객력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단, 랑독-루시옹과 같이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다른 이미지를 연출함으로써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랑독-루시옹은 7개의 리조트를 건설하면서 다양한 건축양식을 추구하였으며, 리조트의 규모나 성격, 개발방식(신규개발, 기존도시 정비) 등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 카마르그 항(Port Camargue)은 신규로 개발한 대규모 마리나 리조트 단지로, 요트관련 전문기술자의 서비스, 물·기름 공급 등이 가능한 곳이며, 세트(Sete)는 기존 운하와 항만시설을 정비하고 어촌축제를 복원한 곳이다.
 - Le Cap A'dge는 마리나 항 지구, 놀이시설지구, 해변 지구, 해양레저스포츠 지구 등 다양한 해변활동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지역이며, 그랑모트(La Grand Motte)는 마리나, 골프 등 해안과 내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다.
 - 팔라바(Palavas)는 Le Cap A'dge와 그랑모트, 카마르그 항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지만 마리나, 운하, 석호산책, 낚시, 요트학교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해양관광도시이다.
 - 특히, 론 지역(Bouchers-du-Rhone)은 카마르그 자연보호구역, 석호를 중심으로 해양관광지역, 포스 임해공업단지, 해안도시의 종합세트(항만, 어항, 마리나항, 각종 해양레저스포츠, 고대와 현대의 조화)인 마르세유 등 해안도시의 성격이 다양하다.
- 영덕군은 강구항을 중심으로 어업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게와 해수욕장으로 유명하고 스킨스쿠버활동이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강구는 대게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데 인근 동해안의 울진과 포항 등 타 지역에 비하여 높은 인지도와 방문객수를 자랑하고 있다.
- 향후 강구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례로 삼기에 가장 적합한 곳은 Le Cap A'dge와 팔라바(Palavas)를 꼽을 수 있다. 즉 강구항 인근을 일부 매립하여 개발할 경우에는 권역별 또는 위치별로 특징을 살려 개발함으로써 관광활동의 다양성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팔라바의 Phare de la Mediterranee(등대모양의 탑)와 같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지역이미지 제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매립을 실시할 경우에는 팔라바의 소규모(수로 폭에 있어서) 운하 또는

Le Cap A'dge와 같은 내만 형태로 개발한다면 개발에 따른 可用면적이 다소 축소되기는 하지만 수면에 대한 접근성과 친근성이 향상되고 안전도를 높일 수 있으며 경관 형성과 친수공간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영국 남부 해양관광지 사례조사

(1) Poole Harbour

① 사례조사

○ Poole의 지역 개요

- 위치 : 영국 잉글랜드 남서부 해안의 도셋州(Dorset County)
- 인구 : 약 15만명(2006년 기준)
- 산업 : 모터보트·요트 제조업, 도자기제조, 화학산업 등

- 풀 항은 세계에서 시드니에 이어서 가장 큰 천연항구로 14세기 이전에는 어항, 이후부터는 무역항으로 이용되었다. 최근에는 컨테이너선의 등장으로 무역항의 기능은 쇠퇴하고 레저보트 제작, 연안여행선(프랑스, Channel Islands 행)의 터미널로 이용되고 있으며, 주변으로 12개의 마리나와 요트클럽이 운영 중에 있다.

<그림 11> Poole항의 안벽 전경, 박물관, Sunseeker 본사



○ 풀(Poole) 항구의 레저 활동

- 풀항은 공간적으로 선착장 및 친수공간이 있는 안벽구간(Poole Quay), 외해에 접해 있는 모래 해변(Sand Bank), 조류 등 생태가치가 높은 갯벌지역, 마리나 및 요트클럽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이곳에서는 연안 크루즈, 윈드서핑, 수상오토바이, 요트 및 모터보트, 수상스키 등 다양한 종류의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인근 모래해변에서는 해수욕을, 철새보호지에서는 생태관찰이 가능하다.
- 기타 관광시설로는 12개의 마리나와 요트클럽, 워터프런트 박물관, 하버 크루즈, 아트센터 등이 있으며, 풀 브릿지는 향후 돛대모양의 오버 브릿지로 재건축될 예정어서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풀항 내측에는 갯벌이 발달해 있는데 이곳은 갯벌의 생태계 보존, 전통적인 천일염 생산 그리고 다양한 조류의 서식지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 지역은 서식 및 산란 등에 있어서 조류(鳥類)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항 선박의 속도를 6노트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각종 소음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특히 수상오토바이(Water Jet)의 운행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림 12> 풀(Poole)항구 해역 이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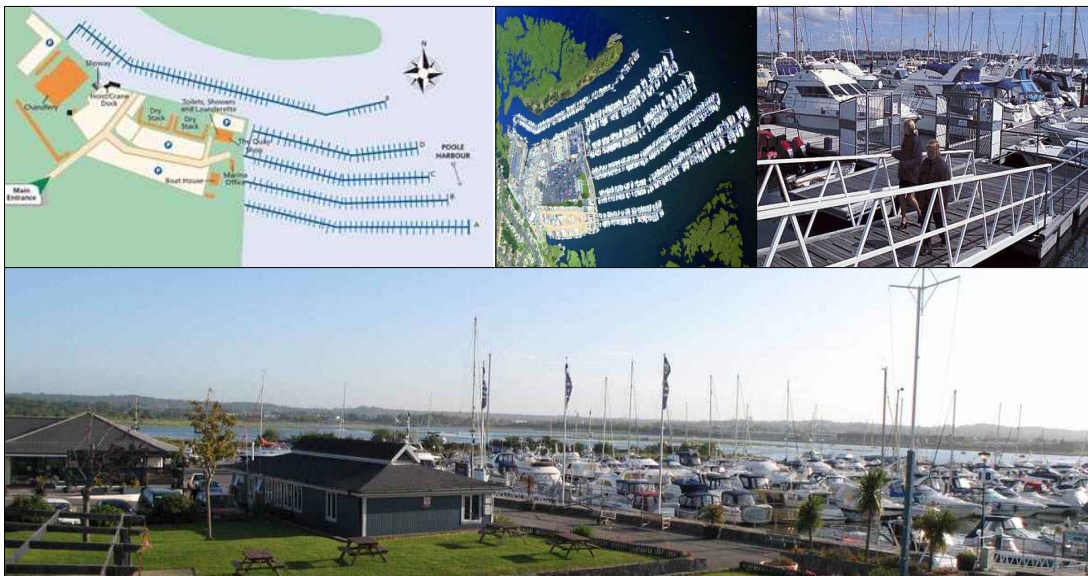
○ 폴 항의 관리

- 폴 항의 관리는 'Hourbour Comissioner'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용 선박이 상선, 화물선, 어선, 레저선박 등으로 매우 다양한 한편 생태학적 가치 또한 유럽 내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지역으로 특히 안전관리를 위해 규정(by-law) 제정 및 홍보에 힘쓰고 있다.
- 규정은 항내에서의 모터보트의 속도 제한, 해양레저기구 이용자의 허가 및 동의 사항, 정기 여객선의 운항 우선권, 운항속도 제외 선박 규정 등 다양하고 폭 넓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항구 내에는 구역(zone)별로 정기 여객선(Chain Ferry), 무동력 해양레저기구, 동력 해양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요트, 모터보트) 등으로 분리하여 활동영역을 정해 두고 있다.

○ Cobb's Quay 마리아

- Holes Bay에 위치하고 있는 마리아로 1,090개의 계류시설과 육상 보관시설인 Dry Stack 시설을 갖추고 있다.
- 유럽 최고의 마리아 그룹인 MDL(Marina Developments Limited)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

<그림 13> Cobb's Quay 마리아 전경



② Poole 항구의 시사점

- 폴항은 항만, 마리아 시설, 요트 제작소, 소형 레저기구 장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Poole항의 관리 운영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무역항과 어항으로서의 기능이 약해지는 항만을 기존 기능을 조정하여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레저항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광지화에 성공함
 - 특정 레저기구를 위한 구역을 지정하고 항구 이용자들이 지켜야할 규정을 만들어 해상에서의 사고 예방과 인명의 안전을 우선시함
 - 갯벌 및 조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칙과 규정을 정함(운항 속도, 소음 등)
- 강구항 리모델링사업은 지역주민과 방문객 모두를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항기능에 관광기능을 복합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바, 도입가능 시설별로 그룹화하여 Zoning 설정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해양활동에 따라서 다양한 안전수칙과 제한규정을 설정하여 효율적이고도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한다.

(2) Portsmouth Harbour

① 사례조사

- Portsmouth의 지역 개요
- 위치 : 영국 잉글랜드 남동부 해안의 햄프셔주(Hampshire County)
 - 인구 : 약 21만명(2007년 기준, 광역으로 보면 약 47만명)
 - 산업 : 전기전자, 금융, 관광, 조선산업, 상업 등
- 포츠머스는 바로 서쪽에 위치한 사우스햄튼(Southampton)항과 아울러 영국 남부의 최대 군항이자 무역항이었으나, 군항 및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은 다소 저하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영국해군의 근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유럽 대륙과의 무역항(카페리 포함)으로서의 위상과 명성도 유지하고 있다.
- 최근에는 오랜 역사유적지로서 서유럽에서 오는 관광객이 연중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2001년에 개장한 서부 해안의 "Gunwharf Quay"는 약 100여개의 유명상점과 30여개의 레스토랑과 바, 다양한 품목의 소매점과 복합영화관 그리고 홀리데이인 호텔 등이 갖춰져 있으며, 유럽인은 물론 런던 인근을 찾는 동서양 관광객의 쇼핑 목적지로 각광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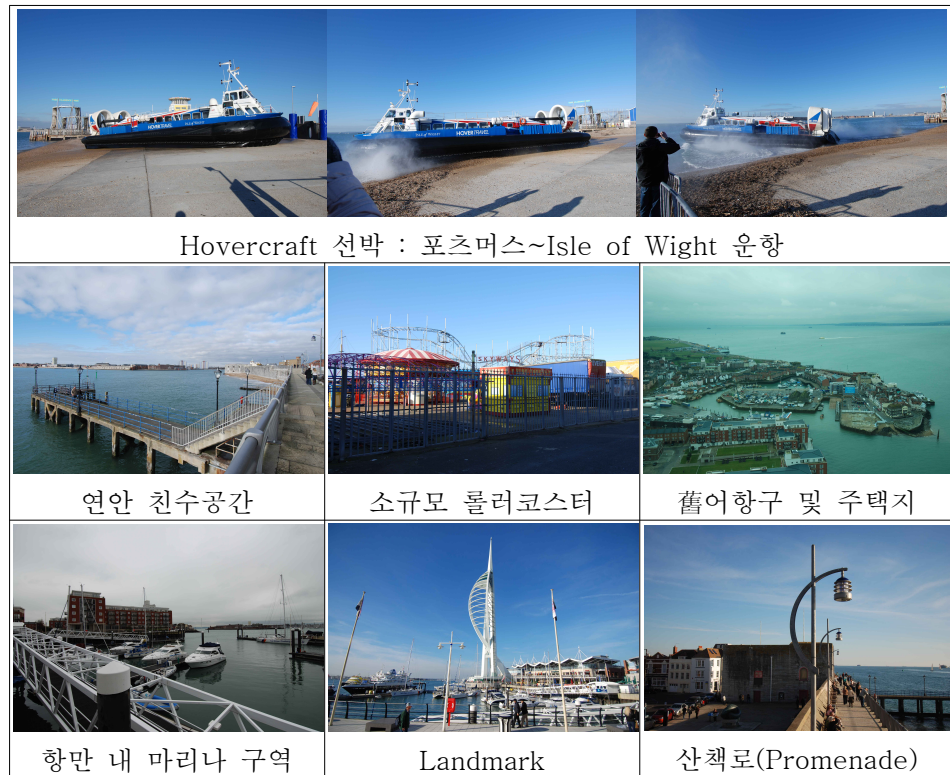
○ Portsmouth에서의 해양 레저 활동

- 포츠머스는 영국 남동부 햄프셔 주에 위치한 군사도시이자 휴양도시로 대서양과 지중해의 영향으로 연중 온화한 기후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는 약 21만명으로 광역 개념으로 볼 때에는 약 47만명에 이르는 거대도시이다.
- 런던의 몇몇 지자체(borough, 한국의 행정구역상 區정도에 판단됨) 보다는 인구밀도가 낮지만 런던시 전체 보다는 인구밀도가 높은 영국 유일의 도시이다.
- 영국 최대 휴양도시인 브라이튼과는 서쪽으로 약 90km 떨어져 있어서 승용차로 1시간 20분 거리에 있고, 사우스햄튼과는 동쪽으로 약 35km 거리에 위치하여 승용차로 30분 거리에 있다.
- 포츠머스와 서쪽의 해안 즉 "Gunwharf Quay"의 대안(對岸)에 있는 고스포트(Gosport) 사이에는 반경 3km 이내에 크고 작은 마리와 요트 및 어선 계류시설이 5개소 건설되어 있으며, 고스포트와 포츠머스의 해변으로는 해변 조망을 위한 크고 작은 Pier 시설(해상낚시터, 레스토랑, 다이빙포인트 등)이 건설되어 시민의 휴식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14> 포츠머스 항구 및 인근의 marina 현황



<그림 15> 포츠머스의 친수공간 조성 현황 및 Hovercraft



② 시사점

- 포츠머스와 인근 연안은 항만(상업항, 무역항, 군항)과 어항(연안어업 및 양식업), marina 시설 그리고 다양한 중소형 레저기구 등이 조화롭게 어울려 있어서 시민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Gunwharf Quay"라고 하는 쇼핑 및 상업지구는 높이가 약 170m에 이르는 "Spinnaker(요트의 큰 삼각돛) Tower"를 랜드마크로 삼아서 2001년 개장한 후 약 8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추가적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한편 Spinnaker Tower 회사의 홍보담당자에 따르면, 2005년 10월 중순경에 개장한 포츠머스의 랜드마크인 "Spinnaker Tower"는 개장한 해인 2005년에 약 60만명이 방문하였으며 2006년 이후로는 연간 약 100만명 정도가 찾고 있다고 한다. 대인의 표준 입장료는 7파운드이며, 지역주민은 대해서는 성인, 청소년, 노약자 그리고 학생 등 모든 계층에 있어서 약 70% 수준을 받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 포츠머스는 서비스산업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공업 등 2차 산업에 의한 것보다 약 3배 이상 높다고 한다.

- 해양 및 연안의 관광활동은 보팅과 요팅과 같은 動的인 해양레포츠활동은 물론 식사, 쇼핑, 오락(볼링, 영화) 그리고 휴식(ex, 홀리데이인 호텔 등)을 종합적이고도 광범위하게 나타나 매우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3) Arundel WWT(Wetland and Wildfowl Trust)

① 사례조사

- 아룬델(Arundel)의 Wetland and Wildfowl Trust의 개요
 - 위치 : 영국 잉글랜드 남동부의 웨스트 서섹스주(West Sussex County)
 - 면적 : 약 60에이커(240,000m²)
 - 영국의 자연보호단체 중 하나인 Wetland and Wildfowl Trust(습지와 야생조류 트러스트)가 관리, 운영하는 영국 내 9개 센터 가운데 하나로 매우 다양한 조류(철새)의 서식지와 산란지가 되고 있다.
 - WWT는 1946년 자연주의자이자 예술가인 Peter Scott卿에 의해서 창설되었으며 영국 이외의 다른 지역(예를 들어, 홍콩의 마이포 습지센터)에 습지센터를 건립할 경우에도 여러 전문가 집단이 조언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 아룬델 습지센터는 연중 크리스마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개방하고 있는데, 습지와 조류에 대한 생태학적 설명과 조사는 물론이고 지역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 연중 다양하고 색다른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St. Davids Day"를 기념하는 오찬행사, 생태전문가가 함께하는 야생이야기, "St. Patrick Day"를 맞이한 전통오찬행사, 야생화/야생조류 사진전시 또는 사진대회, 클래식 기타 연주회 등 지역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야외 결혼식 등 다양한 행사도 벌어지고 있다.
- 습지센터 내에는 각종 들풀과 야생화 그리고 계절별 철새에 대한 생태와 주의사항 등이 적시된 안내판과 지켜야 할 수칙(Code) 등이 있어서 매우 훌륭한 자연 및 생태학습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아룬델센터를 비롯하여 영국 내 9개 센터에서 연중하는 행사는 모두 생태교육과 경험을 통한 자연 학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궁극적인 비전은 다양한 동식물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번식할 수 있는 건강하고 생산성 높은 습지의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이룩하고 자연에 접근하여 배움으로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이다.

<그림 16> 아룬델(Arundel) 습지센터



② 시사점

- 순천만, 낙동강철새도래지 그리고 주남저수지 등 우리나라에도 많은 생태보호지구(또는 철새보호지구)와 습지보전지역이 있으나, 인근 주민의 생활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 국내에서 지역개발을 추진할 때 무엇보다도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시설이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3. 유럽의 해양관광 실태 조사 및 견학을 실시한 소고(小考)

-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는 수 십 세기 이전부터 바다를 무대로 침략행위를 벌여 왔으며, 이러한 활동이 점차 무역과 레저활동으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그들의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생활상이 우리의 현재 모습과 같을 수는 없지만, 서양인들이 바다를 활용/이용하고 정비 및 보존하는 모습에서 우리의 현재와 나아갈 길을 고민할 수 있었다.
- 지금까지는 주로 육상관광, 대량관광(Mass Tourism) 위주의 단순한 經遊形 관광에 머물러 있었으나 갈수록 가족, 친지, 동호인 위주의 소량관광 그리고 환경과 생태를 생각하는 책임있는 관광으로 그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 한편 해양과 연안에 대한 환경 관련 법, 제도적 규제 또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층 해양관광을 위한 기반시설의 적용과 도입 그리고 시설사업에 따른 사후 관리와 운영에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서양에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마리나 항구와 요트계류시설 그리고 집객력 높은 다양한 편의/오락시설 등이 수많은 시행착오와 오류를 겪으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진화되어 왔으나, 우리의 현실은 이와 같지 않으므로 해양관광이 오래 전부터 행해져 온 해양 선진국의 개발 및 운영 사례를 取捨選擇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연안의 친수공간 정비 사례와 운영 실태 그리고 각종 도입시설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각적인 측면의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 영덕군이 앞으로 동해안에서 각광받는 해양관광 Hub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아무리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더라도 이해당사자(Stakeholders) 사이의 갈등과 이견은 설득과 조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즉 학계와의 관계는 물론 민간사업자 그리고 연구계를 망라하는 모든 분야에서 충분한 협의와 조정 과정을 거친 후, 영덕군 강구지역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개발사업 구상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